

개 회 사

-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

따스한 바람은 꽃보라로 산하를 장엄하고, 꽃내음은 바람을 타고 봄소식을 전합니다. 흠날리는 꽃잎들은 그 이름은 다르지만 대지를 장식한 꽃잎들은 봄이라는 한 이름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우리는 찬탄의 등을 높이 올립니다. 한 조각의 꽃잎에도 봄 기운이 가득하고 낱알의 꽃잎마다 생명의 기운이 충만하니, 시방세계 온 법계가 희망으로 약동하고 세간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꿈꾸는 날입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생명의 등에 불을 밝힙니다. 불가사의한 미묘법으로 온 누리에 법의 비를 내려주시니 중생들은 그릇 따라 온갖 이익을 얻고 모든 생명이 안락과 평안을 얻으며 세간의 사람들은 모두 행복을 얻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의 희망과 행복의 길을 가르쳐 주셨지만 아직도 우리 세간의 고통은 그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전쟁의 공포와 공멸의 위기감은 우리 민족을 억누르고 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분쟁은 그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을 비워내면 지혜의 빛으로 가득 차 옵니다.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 욕심을 덜어내어 남을 이익 되게 하면 이것이 바라밀 수행이요 보살의 실천입니다. 지혜의 빛은 나눔의 연등으로 세상을 비추게 합니다.

지혜와 자비의 자리에 서면 너와 내가 다르지 않고 탐욕과 어리석음을 여의

면 평화와 행복의 길이 열립니다. 나와 이웃이 둘이 아님을 바르게 자각하면
갈등이 생기지 않고 남과 북이 본디 하나였음을 분명히 알 때 공존과 상
생의 길은 열릴 것입니다.

한 줄기 바람으로 생명의 기운을 느낄 수 있듯이 희망과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이 땅을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지상정토로 일구라는 것이 부처님께서 부
촉하신 사명입니다. 지혜와 자비로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땅을 만들어
가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실천입니다.

거룩한 부처님오신날이 왔습니다. 사부대중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찬탄
하며 이 기쁜 소식을 온 누리에 전할 수 있도록 모두 손에 손에 연등을
높이 들고 희망으로 가득한 행복한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불기2557년 5월 1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